

'98 국제 광학 및 사진 · 영상기자재전

'98 국제 광학 및 사진영상기자재전(International Optics & Photo Imaging Industry Show '98)이 지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 태평양관 1, 2실에서 열렸으며, 7개국 70여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2만3천6백명의 관객이 참관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에 주요 전시회 참가업체와 출품제품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전시회 참관객들의 직책분류별, 회사분류별, 관심분야별, 관람동기 및 목적별로 분류해 보았다.

—편집자 주—



▲ '98 국제 광학 및 사진 · 영상기자재전 테이프커팅장면(사진왼쪽부터 (주)지엠피 김양평 대표, (주)한국코닥 John C Bay대표, 한국광학회 박대운 회장, 한국광학기기협회 임동일 회장, 산업자원부 김홍경 차관보, 한국종합전시장 고광훈 대표이사, (주)아남인스트루먼트 정현태 대표, (주)한국광학기술개발 이원승 대표, CK산업 이병극 대표, (주)세기판매 이봉훈 대표 순)

〈전시회 개요〉

'98 국제 광학 및 사진영상 기자재전이 지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 태평양관 1, 2실에서 열렸으며, 7개국 70여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신문, 스포츠서울이 주최, 산업자원부, KBS, 전자신문사, 한국무역

협회가 공동후원하고 한국광학기기협회와 한국사진기자재협회, 한국종합전시장이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주요전시품목으로는 카메라와 사진기자재, 프린터, 사진현상기, 렌즈클리너 등 다양한 제품이 선보였으며 삼성과 코닥포토갤러리의 후원으로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지난해 전시회에서는 신사

진시스템인 APS카메라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올해는 기존의 SLR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가 주를 이루었으며 삼성항공산업 뿐만아니라 아남니콘, 코닥, 한국휴렛팩커드 등도 디지털카메라를 선보여 많은 카메라애호가들의 눈길을 끌었다.

〈출품업체 현황〉

삼성항공은 이번 전시회를



▲ 산업자원부 김홍경 차관보(左)가 한국광학기기협회 임동일 회장(中央), 한국광학회 박대운 회장(右)과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광학의 현주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Optics & Photo '98 전시장 내부전경



▲ 삼성항공은 KENOX 신제품코너를 비롯해 GX-1 시연코너, 디지털 카메라 시연코너를 마련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많이 얻었다.



▲ 아남니콘은 카메라 무료점검 및 상담코너를 마련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SLR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를 직접 조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통해 소비자들에게 첫선을 보인 제품이 많았는데 그중 2배 줌카메라인 마이포켓은 98년 4월까지 출시된 35mm 2배 줌 모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모델로서 삼성의 기술로 만든 SHD(Super High Definition)렌즈는 최첨단 컴퓨터로 설계한 비구면 렌즈로 고성능 줌기능에 적합하며 고해상도를 실현, 사진이 더욱

선명하다.

또한, 파노라마촬영, 고급 LCD액정판넬, 시도조절장치, 적목감소, 근접촬영기능, 다이얼식 mode switch, 캡션프린트기능 등 최고급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인텔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디지털카메라 DIGIMAX 50을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으며 또한 SLR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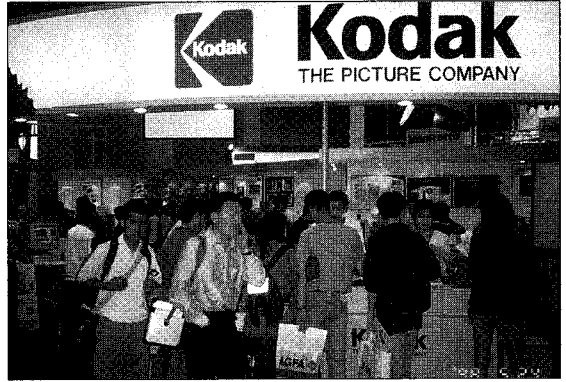
메라인 GX-1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카메라 신제품코너외에도 삼성항공은 디지털카메라 시스템, 기존 모델 전시코너 및 실물화상기를 비롯한 기타 광학기에 대한 전시 등을 보였다.

야남인스트루먼트는 SLR카메라인 F90X, F801S, F50D, FM2과 컴팩트한 줌카



▲ CK산업은 컬러사진현상기 및 컬러인화기를 선보였으며 트리밍, 파노라마, 그리팅 등의 다양한 기능을 시연해 보였다.



▲ 한국코닥(주)는 코닥익스프레스샵과 사진현상기, 디지털카메라 등 다양한 전시품목을 출품했다.



▲ (주)다미상사는 카메라렌즈 및 각종 광학기기, 음반기기용 먼지제거용 크리너와 손수건타입의 안경먼지제거용 매직크린크로즈를 전시했다.



▲ 후지칼라가라점은 QE확대기와 최소형의 인화기를 세트화한 큐빅 I, II 시리즈를 선보였다.

메라 AF500Zoom 및 다양한 사진기자재들도 함께 전시했다.

또한 SLR카메라 뿐만 아니라 100만화소의 디지털카메라 COOLPIX900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았으며 삼성항공, 아남 모두 디지털카메라 및 카메라를 직접 시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참관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기도 했으며 특히 아남은 니콘카메라의 무상수리코너를 마련해 소

비자들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이미지를 주었다.

코닥은 코닥익스프레스점에서 전시 판매되고있는 각종 필름, 액세서리, 등을 선보이고 있으며 디지털카메라 DSC210 등에 대한 전시 및 사진현상기 QSS2211도 전시되었다.

CK산업은 컬러사진현상기와 필름인화기를 동시에 선보

사의 즉석사진시스템, 일본 FUJIMOTO사의 DES 5080, 일본 COPAL사의 ML-6550, ML-3230 및 일본 FC의 슬라이드현상기, 흑백현상기, SHEET현상기 등을 출품했다.

다미상사는 카메라렌즈용의 크린크로즈를 선보일 예정이며 광학렌즈 뿐만 아니라 CD 음반, 컴퓨터 등 다양한 용도의 크린크로즈를 출품했다.

노리츠강기는 QSS-2302의 사진현상기를 선보였으며, 한국휴렛팩커드는 컬러복사와 스캐너와 동시에 가능한 오피스젯프로 1150C 제품을 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흑백뿐만 아니라 컬러프린터, 컬러복사기, 스캐너 등의 다기능 복합사무기기 데스크젯 670K, 692K, 870K, 890C, 신제품 720C, 1120C와 스캐너 5s, 5p, 6100C, 대



▲ 노리츠강기는 QSS-2301사진현상기와 V-50, 그리고 DCP-760 디지털 프린트기를 출품했다.

일 예정이며 그외에 이태리 SAN MARCO의 PERSONAL P R O 3 1 2 H S, PERSONAL LAB 212, 디지털영상장비 DOCSY 51, 프랑스 SPIE



▲ 세기판매(주)는 엘린크롬 스트로보, 지나 카메라, 매프로 토, 조보 자동현상기 등 다양한 사진기자재를 출품하였다.



▲ (주)지엠피는 대형포스터와 연속작업용 라미네스코팅으로 눈길을 모았으며 즉석제본기 및 컬러, 흑백 레이저 잉크전사도 전시하였다.

형컬러프린터기인 2500CP & 2000CP 등을 선보였다. 미주리코는 Mamiya 카메라

라와 액세서리, 렌즈 등을 주로 전시하였고, PMCG는 독일 수입완제품인 Colen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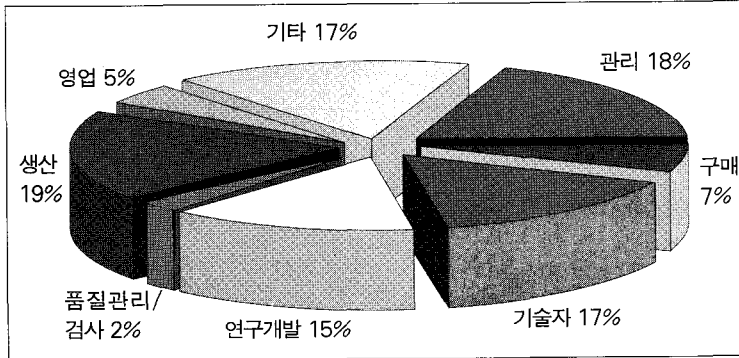
ESECO 등의 필름현상기 인 화현상기 대형확대기 등을 출품했다.

SK상사의 Digital Photo System인 포토팬(FOTTO FAN)은 기존Digital 업체의 잉크젯 프린터방식 및 염료승화방식과는 달리 필름출력(인화방식)으로 기존 프린터방식의 색바램이나 크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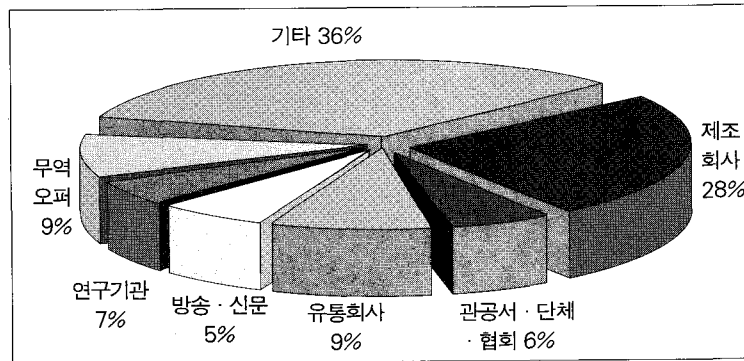
그 외에 사진기자재업체들은 각종 사진기자재로 렌즈, 플래시, 노출계, 조명기구, 배경설비, 액세서리, 앨범도 전시하였다.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작년에 첫선을 보였던 APS 카메라가 눈에 두드러지지않는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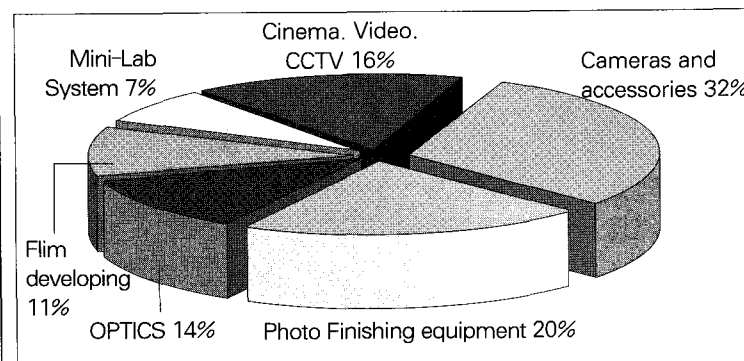
이는 그대로 SLR카메라와 첨단장비인 디지털카메라와 그 주변기기에 대한 전시로 바뀐 분위기였다.



〈그림 1〉 참관객의 직책분류별 분포도



〈그림 2〉 참관객의 회사분류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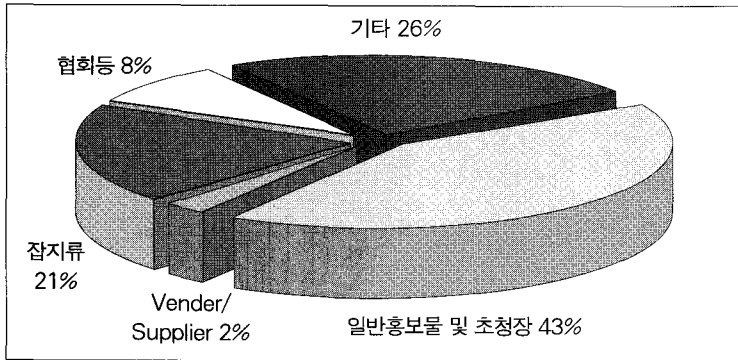


〈그림 3〉 참관객의 관심분야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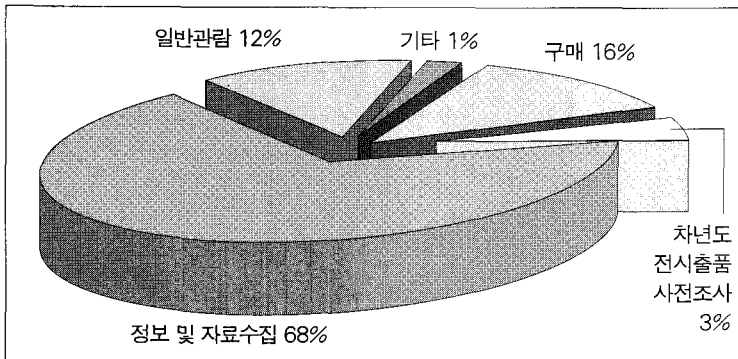
〈참관객의 분포〉

참관객들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다소 줄어든 경향이 있었으나 광학 및 사진기자재에 많은 관심으로 전시장을 찾아왔다.

참관객의 직책분류별로 보면 생산직이 4천5백여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리, 기술자, 연구개발, 구매, 영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1〉



〈그림 4〉 참관객의 관람동기별 분포도



〈그림 5〉 참관객의 관람목적별 분포도

회사분류별 관람인원으로는 제조회사가 제일 많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무역, 오피, 유통회사, 연구기관, 관공서 단체 협회 등이었다.〈그림2〉

관심분야로는 카메라& 액세서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는 사진장비, 영화 비디오, CCTV, 광학, 현상기 등으로 나타났다.〈그림3〉

관람동기별 관람인원은 일반홍보물 및 초청장, 잡지류, 협회 등에 의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

관람목적으로는 정보 및 자료수집을 위한 관람이 가장 많았으며, 구매, 일반관람, 차년도 전시출품 및 사전조사 등을 위해 관람했다.〈그림5〉

취재 : 최형심 기자